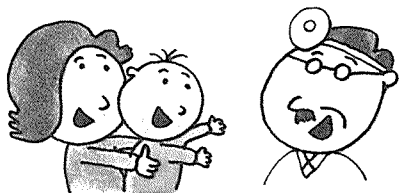




## 간경변증의 합병증과 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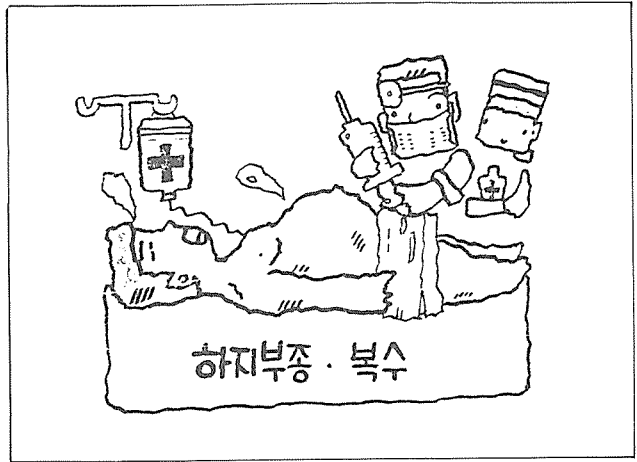
간경변증은  
일단 발생하면  
원상회복에  
어려우므로  
예방을  
중시해야 한다

간경변증의 특이 증상은 대부분 합병증에 의해 나타나므로 치료의 기본 원칙은 합병증의 치료에 두어야 한다.

실상 간경변증 자체에 대한 치료방법은 없다. 따라서 보조적인 요법에 의해 간경변증의 진행속도를 늦추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다.

즉 과로를 피하고 단백질 등의 고른 영양 섭취, 적절한 안정요법 등이 중요하며 더이상의 간의 손상을 피하기 위해 금주를 해야 하며 약물투여도 조심해야 한다.

간경변증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합병증은  
하지부종을  
포함한  
'복수'이다.



간경변증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합병증은 하지부종을 포함한 '복수'이다. 복수가 합병되면 입원 치료를 해야 하며 부족한 알부민 보충, 이뇨제 투여, 복수제거 등이 실시된다.

복수가 오래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복막염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이후의 경과가 좋지 않으므로 적절한 항생제를 조속히 투여해 상태를 호전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비교적 흔한 합병증으로 위상부 및 식도의 정맥류를 들 수 있다. 정맥류는 간의 형태변형에 의해, 문맥으로부터 들어오는 혈액을 간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함으로써 문맥압이 증가하여 부측에 혈로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것이 과열되면 급성 출혈로 인한 대장의 위장출혈이 일어날 수 있으며 실혈성 쇼크로 인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수혈과 함께 출혈부위에 대한 지혈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이 상태가 되면 병원에서는 지혈을 위하여 약물을 투여하거나 내시경적 경화요법, 혈관 압박법 등을 사용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경과가 아주 나빠 사망하는 것이 보통이다.

간경변증이 진행되어 간세포 기능이 극도로 약화되면 의식 장애를 초래하는 간성혼수가 오게된다. 간성혼수는 일반적으로 위장 출혈, 탈수, 전해질 불균형, 감염, 이뇨제 투여, 진정제나 수면제 투여, 수술



간염예방은  
곧 간경변증  
예방의  
첩경이다.



이나 의상 등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

간성혼수의 초기증상은 불면증, 우울증, 자극에 대한 반응 둔화, 심한 흥분상태등을 들 수 있으며, 그 정도가 심해지면 의식을 상실하게 되고 혼수상태에 빠지게 된다.

치료를 위해서는 유발인자를 고정해 주면서 암모니아 생성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항생제의 관장과 함께 암모니아를 비롯한 기타 유독 물질 생성을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한다.

이외에 간경변증과 동반되는 질환으로 세균감염이나 출혈성소인에 대한 문제도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저항력의 약화로 인한 폐염이나 패혈증의 병발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되며 간성혼수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비장 비대에 의한 혈소판의 감소와 간세포 기능 저하에 따른 혈액 응고인자의 감소는 출혈을 잘 일으키는 원인이 되며, 이로 인하여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간경변증은 일단 발생하면 원상회복이 어렵다. 따라서 관리에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에 있다.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간염 예방이 곧 간경변증 예방의 첩경이다. 따라서 예방접종 등을 통한 간염 예방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일단 간경변증에 이환된 환자는 주기적인 진찰과 검사로, 합병되기 쉬운 간암의 조기발견에 노력해야 한다. 특히 B형 간염에 의한 간경변증 환자는 3개월마다 초음파검사 등을 받도록 해야 한다. 74